LG산전(주)

3분기 매출액 1천 984억원

LG산전은 올해 3분기(7~9월)에 매출액 1천 984억원, 영업이익 208억원, 경상이익 97억원, 순이익 32억원의 경영실적을 올렸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매출액 1% 감소, 영업이익 27% 감소, 경상이익 85% 신장, 순이익 흑자 전환한 것이다.

LG산전의 3분기까지 누적실적은 매출액 6천 40억원, 영업이익 717억원, 경상이익 160억원, 순이익 602억원으로 집계되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매출액 1.3% 신장, 영업이익 17% 감소, 경상이익 35.5% 감소, 순이익은 적자로 전환한 것이다.

LG산전 관계자는 누적 순이익이 적자로 전환된 이유에 대해 "지난 2분기에 체리스톤 사가 발행한 교환사채 상환과 관련하여 정산손실 852억원이 특별손실로 반영되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또한 "영업권 상각액인 355억원과 정산손실 852억원을 제외한 정상적인 영업활동 기준으로 보면, 3분기 누적 영업이익 1천 72억원, 경상이익 515억원, 순이익 605억원으로 나타났다"고 덧붙였다.

현대중공업(주)

정보화기업 대상 수상

현대중공업이 정보화 우수기업에 선정되었다.

현대중공업은 신산업경영원과 정보통신부, 서울경제신문 등이 공동으로 제정한 「2003년 뉴미디어 대상」에서 정보화기업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이 상은 1989년부터 시행되어 올해 15회째를 맞는 것으로, 현대중공업은 올해 처음 이 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게 되었다.

시상위원회에 따르면 이 상은 해당 분야에서 기술개발과 생산실적이 뛰어나고 기업 안팎에서 정보·통신시스템 구축을 활발히 추진해 정보 운영의 효율성이 높은 기업을 대상으로 엄정하게 심사해 선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시상위원회 측은 공정한 심사를 위해 윤동윤 전 체신부장관과 서울대학교 이충웅 교수를 비롯한 7명의 학계·산업계 인물들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구성, 2개월간의 심의 끝에 대상기업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특히 현대중공업은 영업·설계·생산 등 각 부문별 시스템을 사업본부별로 특화하고, 선진 경영혁신 및 정보화 기법을 적극 도입하여 전사 경영정보 인프라의 구축을 추진하는 등 기업 운영 전반을 첨단화한 점을 높게 평가받았다.

또한 현대중공업은 인사·재무·시설·구매 등 경영지원 전 부문을 전산 운영하고 있으며, 조선·해양·건설장비 등 전 사업부문의 정보화 수준을 균형 있게 발전시켜 전산환경을 표준화하고 정보 운영의 효율을 높인 점도 수상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현대중공업은 1999년 정보통신부가 주관하는 '제3회 기업정보화 수준평가'에서도 우수기업상을 수상하는 등 기업정보화 면에서도 업계를 주도하고 있다.

시상식은 11월 13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렸으며, 현대중공업 강신택 이사가 참석해 진대제 정보통신부 장관으로부터 상을 받았다.

국내 최소형 인버터 개발

현대중공업이 국내 최소형 산업용 인버터를 개발해 업계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현대중공업이 생산하는 인버터는 주로 산업용 자동화설비에 사용되는 전동기 속도 제어장치로, 최근 「하이런(hiRUN) N300」 시리즈 3개 모델 75종의 제품을 출시했다.

이 제품들은 5.5~160kW까지의 다양한 용량별로 생산되며, 기존 제품에 비해 부피가 절반 정도에 불과한 것이 특징이다.

또한 이 인버터 제품들은 '센서레스 벡터제어'라는 특수제어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별도의 센서없이 출력 전류의 크기와 주파수를 제어할 수 있기 때문에 0.5Hz의 저주파수대에서도 200% 이상의 토오크(torque, 전동기에 가해지는 힘) 운전이 가능하다.

그 밖에 냉각팬과 제어단자 등을 탈착식으로 설치해 수리와 부품 교환이 쉬우며, 사용자그룹 설정 기능을 통해 작업 편의성도 크게 향상됐다고 현대중공업 측은 밝혔다.

N300P 모델의 경우 에너지관리공단에서 '고효율 에너지 제품인증(e-마크)'을 획득해 절감 전력 1kW당 19만 8천원을 한국전력공사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등 경제성도 매우 우수한 장점을 지니고 있다.

현대중공업은 이번 제품을 순수 독자 기술로만 제작, 국내에서 유일하게 저압 소용량에서 고압 대용량까지 전 용량의 인버터를 국산기술로 제작·공급할 수 있게 되었다.

중국에 중전기 합작공장 설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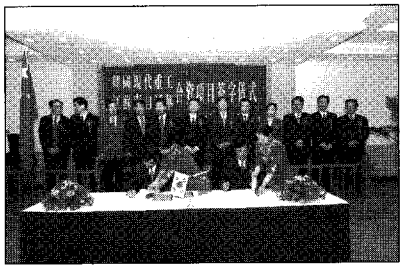
현대중공업이 중국에 중전기 합작공장을 설립한다.

현대중공업은 10월 27일 중국 강소성 揚中市의 江蘇南自通華電氣集團有限公司(이하 "강소남자" 社) 사무실에서 현대중공업의 최길선 사장과 강소남자 사의 왕 바오 핑(王寶平) 회장 등 양사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江蘇現代南自電氣有限公司(이하 "강소현대" 社) 합자 서명식을 가졌다.

강소성 양중시 약 6만평 부지에 세워질 강소현대 사에는 현대중공업과 강소남자 사가 65:35 비율로 총 6,000만불을 투자하며 2004년 4월 준공 후 1단계로 배전반과 GIS(가스절연개폐장치), 중저압 차단기 등을 생산할 계획이다.

현대중공업은 향후 변압기, 전력전자제품 및 철도차량용 전장품 등으로 생산품목을 다변화하여 강소현대 사를 전기전자시스템 사업본부의 제2의 생산거점으로 육성하여 중국 내 판매는 물론 동·서남아시아 및 중동지역의 수출전진기지로 활용할 예정이다.

현대중공업은 강소현대 사의 2004년 매출목표로 약 4,000만불을 설정하고 매년 60~80%의 성장을 통해 2008년도에는 약 3억불의 매출을 올릴 계획이다.



합자 파트너인 江蘇南自通華電氣集團有限公司는 매출액 약 5,000만불 규모의 중국 배전반업계 20위 내의 업체이며 모기업인 중국화전발전공사 산하 남자그룹은 전국적인 영업망을 보유하고 있어 향후 시장개척에 용이한 장점을 가지고 있다.

합자사가 위치한 양중시는 전기 업종이 집중되어 부품 수급 및 외주 작업이 용이한 장점을 가진 중국의 전기 업종 전략 육성 단지이다.

한국수력원자력(주)

영광6호기, 국내 최초 첫 주기(週期) 무고장 운전

원전 운영 25년 만에 이룩한 쾌거

한국수력원자력(주) 영광원전 6호기가 2002년 12월 24일 처음 상업운전을 시작한 이래 2003년 11월 19일까지 총 331일의 한 주기 동안 단 한번의 고장도 없이 연속으로 운전하

였다. 이는 우리 나라에서 1978년 고리원전이 가동된 이후 처음 이룩한 쾌거로써 한국표준형 원전의 성능 및 원전운영 기술의 우수성을 동시에 입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그 동안 국내 원전 18기의 운영실적을 보면 총 40회의 한 주기 무고장 운전을 달성하였지만, 모두 상업운전 시작 후 3주기 정도가 지나서야 한주기 무고장 운전을 달성할 수 있었다. 따라서 처음 상업운전에 들어간 영광 6호기의 한 주기 무고장 운전달성은 우리의 원전운영 역사상 신기원을 이룬 셈이다.

영광 6호기는 한 주기 동안 83억 kWh의 발전을 하여 유연탄 301만톤 또는 LNG 131만톤의 수입대체 효과를 거둔 셈이며, 유연탄 사용과 비교하면 이산화탄소 배출량 215만톤을 저감하는 효과로 지구온난화 예방에도 기여하였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지난 21일 영광원자력본부에서 임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기념식을 가졌다.

한국남부발전(주)

이임택 사장 「윤경포럼」 토론회 참석

한국남부발전(주)는 윤리경영을 통한 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남부발전이 법인으로 가입, 활동하고 있는 「윤경포럼」 11월 행사가 지난 13일 서울 장충동 소재 서울클럽에서 개최되었다.

"깨끗한 기업, 깨끗한 정부, 깨끗한 한국"이란 주제로 개최된 이번 행사에서 이남주 부패방지위원회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현재 50위에 처한 한국의 국제적 부패지수를 2005년에는 20위권으로, 2010년에는 10위권으로 끌어올리는 것이 정부의 목표인 만큼 부패후진국에서 벗어나 세계적으로 투명한 한국을 만들기 위해 정부뿐 아니라 재계, 학계 및 시민사회 모두가 힘을 합쳐 노력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이날 행사는 투명성세션, 윤경세션, 종합토론의 3부 세션으로 나누어 진행되었는데, '깨끗한 정부'란 부제로 진행된 1부 투명성 세션에서는 박정수 서울시립대 교수의 '정부 투명성 확보와 국가경쟁력 제고', 한상완 현대경제연구원 본부장의 '기업 투명성과 정부의 바람직한 역할'에 대한 발표가 있었으며, '깨끗한 기업'이란 부제로 진행된 2부 윤경 세션에서는 김기찬 카톨리대 교수의 '윤리경영과 행동강령'과 신철호 성신여대 교수의 '윤리경영을 통한 기업의 브랜드 가치창조'를 주제로 한 발표가 계속되었다.

한편, '깨끗한 한국'을 부제로 진행된 3부 종합토론은 남부발전의 이임택 사장을 비롯 김경중 부패방지위원회 정책실장, 박기종 국무총리실 규제개

혁 조정관 등 7명의 토론자가 참석한 가운데 조동성 서울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되었는데, 이 토론에서 이임택 사장은 IMF 이후 기업경영환경의 룰의 변화에 따라 한전으로부터 분리된 각 발전회사는 대내·외적으로 좋은 기업평가를 받기 위해 저마다 노력하고 있으나, 이를 위해선 투명한 윤리경영을 하지 않으면 안될 상황에 직면해 있음을 자금조달(파이낸싱)과 연계하여 설명하였다.

즉 설비산업으로 인해 많은 자금이 소요되는 발전사업의 추진에 있어 과거에는 부동산이나 권력 등을 담보로 전력채를 발행하여 자금을 조달함으로써 적지 않은 부작용이 있었으나, 현재는 시장 매커니즘에 따라 마켓에서 요구되는 투명성, 책임성, 신뢰성을 기업에서 성실히 지킬 경우 저렴한 자금을 시장에서 충분히 조달할 수 있음을 강조하였으며, 기업 활동에 있어 걸림돌이 되고 있는 비현실적 제도 등을 알기 쉬운 제도로 바꾸고 사회 전반에 걸쳐 '투명성'이 제고될 때 우리사회는 선진국으로 진입할 수 있음을 부언함

으로써 참석자들로부터 많은 공감을 받았다.

종합토론을 마감하는 자리에서 조동성 교수는 부패의 유형을 3가지로 분류(권력형부패, 성공욕구형 부패, 가치관 부재로 인한 부패)하고, 이의 해결을 위해선 정부, 기업 및 학계의 부단한 노력이 필요함을 역설하였다.

한국남동발전(주)

제2회 전사 경영혁신 및 디지털 업무혁신 경진대회 개최

한국남동발전(주) 본사 기획조정처(처장 오대일)는 11월 18일 2003년도 제2회 전사 경영혁신 및 디지털 업무혁신 경진대회를 사장을 비롯한 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무주양수 홍보관에서 개최했다.

이번 열린 경영을 위한 제2회 경영혁신 및 디지털 업무혁신 경진대회는 2002년도 제1회 대회를 필두로 통상 네 번째 열린 전사적 혁신대회이다.

남동발전은 "미래를 창조하는 초일류기업"이라는 회사비전 달성을 위해 본사와 사업소에 214개 자율혁신 추진반이 구성되어 700건이 넘는 혁신과제를 도출하여 자율적으로 혁신을 추진해왔다.

이들 추진반이 수행한 과제를 대상으로 예심과 본선심사를 거쳐 엄격히 선발된 8개팀이 결선에 올라와 혁신사례를 발표했다. 특히, 이날 발표현장에서는 현재 남동발전에서 추진하고 있는 경영혁신 전반에 걸친 점검과 함께 실제적이고 효율적인 운영방향을 모색하고자 설문조사를 시행하였고 경품추첨을 통해 보다 많은 직원들이 설문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도 가졌다.

이날 삼천포화력 CSU팀은 "연속식 석탄하역기 출구 스탠드 개선" 과제를 발표하여 영예의 대상을 수상하였으며 그 외 수상팀은 아래와 같다.

- 금상: 여수화력(창조팀) 탈황운전용 모니터 국산화 개발
- 은상: 기획조정처(조직예산팀) 예산관리의 최적화 방안
- 은상: 삼천포(1발전소 선견지명팀) 원가정보 공유시스템 구축
- 동상: 무주양수(공무팀) 발전 최대출력 상향운전으로 전력거래 수익 증대
- 동상: 영흥(시그마팀) 연돌 및 탈황설비 용접작업개선으로 품질 Cost 절감
- 동상: 영동화력(비상팀) 전기집진기 설비개선으로 운전방법 개선
- 동상: 분당복합(기계1팀) 가스터빈 성능개선으로 발전원가 절감

한편, 이날 경영혁신 경진대회와 동시에 시행된 디지털 업무혁신 경진대회에서는 사업관리처 전력거래팀이 "전력거래 정산업무 자동화 프로그램"이라는 혁신과제를 발표하여 대상을 수상하였으며, 그 외 수상팀은 아래와 같다.

- 대상: 사업관리처(전력거래팀) 전력거래 정산업무 자동화 프로그램
- 금상: 삼천포(1발전소 발전2부) Unit 기동관리 프로그램
- 은상: 삼천포(2발전소 화학부) 화학분석자료 상시제공 시스템
- 동상: 분당복합(전기부) 정문 출입관리 과학화 시스템
- 동상: 영흥(시운전부) 국내 최초 800 MW 석탄화력 시운전종합관리홈페이지

윤행순 사장은 격려사를 통해 "세계적 초일류기업들의 공통점은 장기적 안목을 가지고 끊임없이 혁신하였던 기업들이었음을 상기시키며 남동발전이 글로벌 경쟁에서 뒤지지 않고 진정한 초일류기업으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구성원 모두가 혁신마인드를 확고히 하고 회사를 사랑하며 자기 일에 열정적으로 정진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한국서부발전(주)

최고 권위의 국가품질상 수상

한국서부발전(주)은 11월 14일 서울 삼성동 COEX에서 산업

자원부가 주최하고 환경부, 노동부, 건설교통부, KBS, SBS 등 정부 부처와 언론기관이 후원하는 제29회 '국가품질경영대회'에서 영예의 국가품질상(품질경영상)을 수상하였다.

서부발전은 창사 이래 기울여온 품질경영 성과와 노력에 대한 평가를 통해 품질경쟁력을 높임으로써 보다 나은 전력서비스를 제공하고 나아가 회사의 발전과 도약기반을 확고히 하고자 이번 국가품질상에 응모하였는데, 도전 첫 해에 국내유수의 기업들과 경쟁하여 큰 상을 받게 됨으로써 수상의 기쁨을 더해 주고 있다.

특히 이번 국가품질상 도전을 위해 지난 1월부터 사내 TFT를 구성하여 리더십, 전략기획, 고객만족경영, 인적자원 중시, 정보와 분석, 프로세스 관리 등 6개 영역에 걸쳐 창사 이래 품질경영 노력을 집중 점검하여 체계화하는 한편 품질비용(Q-Cost) 관리시스템 구축, 제품안전경영시스템(PSMS) 구축, 6시그마 경영혁신 추진 등 경영개선노력을 병행하여 추진하여 왔으며, 특히 지난 8월 28일부터 30일까지 3일 일정으로 본사와 사업소에 대한 현지심사에서 품질경영 리더십 및 실천노력을 체계적으로 설명함으로써 좋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품질경영 유공자에 대한 정부 포상에서, 김윤태 관리본부장이 품질경영 및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철탑산업훈장을 받았다.

서부발전은 앞으로 성숙한 품질의식과 품질문화를 바탕으로 발전소 건설, 운영 뿐 아니라 경영의 모든 부문에서 사람, 품질, 프로세스의 혁신을 바탕으로 World Class의 경영품질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주)효성

창립 37주년 기념식에서 경영혁신의 의지 밝혀

효성은 11월 3일 창립 37년을 맞아 본사를 비롯, 각 사업장 별로 창립기념식을 개최했다.

임직원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마포 본사 기념식에서 이돈영 사장은 '99년도 이후로 회사 경영실적이 계속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며 "자만심을 버리고 고비용구조의 개선과 품질경쟁력 확보, 영업역량의 강화를 통해 상황을 반전시킬 수 있는 돌파구를 만들자"고 창립기념사를 통해 경영혁신의 의지를 밝혔다.

이돈영 사장은 특히 "모든 임직원이 확고한 주인의식을 갖고 세세한 부분까지 완벽하게 챙기며 문제를 과감히 노출하는 풍토를 조성해야 한다."며 디테일경영과 투명경영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주)효성은 남이 부러워할 만큼의 우수한 제품과 시설, 기술을 갖추고 있다"며 "고객을 만족시키고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자기분야의 전문가가 되어야 하며 보다 완벽한 팀웍을 발휘할 수 있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마포 본사를 비롯한 전국의 주요 사업장에서 거행된 창립기념식에서는 회사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중공업PG 정영주 이사와 경영혁신팀 전유숙 과장 외 374명이 장기근속상을 수상했다.

한국종합에너지(주)

노인의 날, 국무총리 표창 수상

한국종합에너지(주) 인천발전소(소장 한성덕)는 지난 10월 2일 열린 보건복지부 주최 '제7회 노인의 날 기념' 정부포상 행사에서 단체부문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했다.

이날 수상은 무의탁 노인들의 주거환경 개선 등 소외된 노인들을 위한 사회공헌 활동에 앞장서 온 공로를 인정받은 것이다.

한국종합에너지의 사회공헌 활동은

무의탁 노인들을 위하여 매주 화요일에 도시락 배달, 월 1회 집수리 및 계절별로 반찬만들기, 소독, 방풍막 설치, 도배, 카네이션 달아드리기, 김장 등을 하고 있으며 아동들을 위하여 공부방 사업을 월 2회 전직원의 자발적 참여로 실시하고 있다.

한전원자력연료(주)

e비즈니스 최우수기관 선정

한전원자력(주)가 11월 14일 서울 삼성동 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진행된 '제1회 공공부문 e비즈니스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공공부문 e비즈니스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산업자원부장관상을 받았다.

2002년부터 종합정보화시스템을 구축해온 원자력연료(주)는 이번 평가에서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으로 전반적인 e비즈니스 수준이 타 기관에 비해 우수한 것으로 평가 받아 기업형 부문에서 영예의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으며, 한국전력공사와 한국가스공사가 각각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다.

산업자원부가 주최하고 한국전자거래진흥원이 주관하여 실시한 이 행사는 공공부문의 e비즈니스 촉진을 목적으로 산업자원부 산하 63개 기관을 대상으로 지난 6월~9월 동안에 걸쳐 산하기관의 e비즈니스 수준을 조사·평가한 결과에 대한 시상과 우수사례 발표로 진행되었다.

e-Business란 인터넷 및 IT를 도입하여 수행되는 전반적인 기업의 경영활동을 의미하며, 전자상거래란 컴퓨터와 네트워크라는 전자적인 매체를 통해 상품 및 서비스의 거래가 이루어지는 방식으로 거래의 과정 중 입찰·계약·주문 중 최소한 하나의 절차가 컴퓨터 네트워크 상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말한다.

두산중공업(주)

"울진 5호기 최초 연료 장전"

두산중공업(주) 울진 원자력 5호기의 최초 연료장전이 지난 20일 시작해 25일 성공적으로 완료됐다.

이어 31일에는 울진 5호기의 최초 연료장전을 축하하는 기념식이 발주처인 한수원 정동락 사장과 두산중공업 강문창 부회장, 김태우 원자력BG장 외에 지역 국회위원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울진 원자력발전소 5호기 현장에서 개최됐다.

원자력 발전소 최초 연료장전은 발전소 전 계통의 시공과 시운전을 마치고 인허가 검사기관의 허가를 받은 후 177개의 핵연료 집합체를 원자로 내부에 설치하는 작업이다.

연료장전을 마친 울진 5호기는 앞으로 고온기능시험과 초임계시험, 최초계통병입을 거쳐 당초 계획을 1개월 앞당긴 내년 4월말 상업운전에 들어갈 예정이다.

울진 5, 6호기는 두산중공업이 원전 공사로는 최초로 기자재 제작부터 토건공사, 기전설치공사, 시운전까지 일괄 수행하는 프로젝트로서 이번 연료장전을 성공리에 수행해 공기단축은 물론 원전 건설에서의 종합 시공능력을 대·내외에 다시 한 번 입증하는 계기가 됐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 두산중공업 울진 5, 6호기 PM장인 윤정문 부장과 김춘홍 차장, 한두희 차장 등 3명이 한수원 사장으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